5강 마음의 내적 구조

1. 쾌락원리로부터 현실원리로의 이행

◇ 정신분석에 토대를 둔 심리학에서 우리가 흔히 출발점으로 택하는 것은 분석을 통해 그 독특한 특성이 알려지는 무의식das Unbewußte의 정신 과정이다. 우리는 이 무의식의 정신 과정을 더욱 오래된, 원초적인 1차 과정으로 간주한다. 이는 무의식의 정신 과정이, 그것만이 유일한 종류의 정신 과정이었던 정신 발전 단계의 잔존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1차 과정을 지배하는 규제 원리는 비교적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쾌락-불쾌의 원리, 또는 더 간단히 '쾌락원리Lustprinzip=pleasure principle'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원초적인 제1차의 정신 과정들은 쾌락을 추구한다. 따라서 불쾌를 조장하는 사건이 있다면 자연히 정신 활동은 그 사건으로부터 물러서게 된다. (바로 억압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밤에 꾸는 꿈,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괴로움을 주는 여러 인상들에서 벗어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바로 쾌락원리 때문에 생긴 결과이자 그 원리가 어느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는지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 내적 욕구의 요구가 심리적 안정을 해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소망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날 우리가 매일 밤 꿈-사고를 통해 겪는 것과 같은 환각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기대했던 만족을 얻어내지 못하고 실망을 경험하게 되면서 환각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정신 기관은 환각을 통한 만족 대신에 외부 세계에서 현실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정신 기능의 새로운 원리가 도입되는 것이다. 정신에 제시되는 것이 유쾌한 것이 못 되지만 설혹 그것이 불쾌한 것이라도 현실성은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실원리Realitätsprinzip=reality principle'가 설정되는 단계는 분명 아주 중대한 단계인 것이다.『정신적 기능의 두 가지 원칙』(1911)

-마음에 대한 프로이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쾌락원리'와 '현실원리'라고 할 수 있다.

-'쾌락원리'는 글자 그대로 우리의 일차적 정신 과정이 불쾌를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원리'는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쾌락을 추구했다가는 더 큰 불쾌를 얻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원리'가 2차적 정신 과정이라면, '쾌락원리'는 1차적 정신 과정이다.

- 의식과 사유의 계보학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외부 현실이 갖는 중요성이 증가할수록 외부세계를 지향하는 감각기관과 그 기관에 관련된 '의식'의 중요성 또한 증가한다. 의식은 지금까지 그것의 주된 관심 대상이었던 쾌락과 불쾌의 특질들뿐만 아니라 감각적 특질들까지 파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일 어떤 긴급한 내적 욕구가 일어나더라도 외부세계의 자료에 낯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세계를 정기적으로 탐색하는 특수한 기능이 새롭게 시작된 셈이다. 이것이 바로 '주의력' 기능이다. 말하자면 의식의 이 기능은 의식이 감각 인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 인상이 나타날 곳을 찾아가 중간에서 맞이하는 기능인 것이다. 이와 동시에 아마 '기록' 체계도 도입되었을 것이다.

이 체계의 임무는 정기적인 의식 활동의 결과를 기록해두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이라 부르는 것의 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새로 출현한 표상들 가운데 일부를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리비도 집중에서 제외시키는 억압의 경우, 그 억압의 자리에는 '공정한 판단'이 자리 잡는다. 그 판단과정은 주어진 표상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즉 그 표상이 현실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그와 같은 판단은 현실에 관한 기억 흔적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운동을 통한 발산에도 새로운 기능이 할당된다. 운동을 통한 발산은 쾌락원리의 지배 하에서 정신 기관에 가해지는 자극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말하자면 신경자극을 신체 내부에 보냄으로써(이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동작이 얼굴 표정, 혹은 감정 표현으로 이어진다) 자극의 증가를 낮추는 것이 운동을 통한 발산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운동을 통한 발산이 현실의 적절한 변화에 이용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운동을 통한 발산은 '행동'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점차 운동을 통한 발산(행동)에 규제를 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역할은 표상의 재현을 통해 전개되는 '사고' 과정이 담당하게 된다. 정신 기관으로 하여금 자극의 증가로 생기는 긴장을 견뎌 내게 하고 동시에 운동을 통한 발산을 연기토록 하게 만드는 기능이 이 사고 과정에 부여된다.『정신적 기능의 두 가지 원칙』(1911)

-인간의 내적 욕구는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쾌락에 대한 추구는 외적인 현실에 의해 방해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

-주의력은 프로이트의 말대로 "만일 어떤 긴급한 내적 욕구가 일어나더라도 외부세계의 자료에 낯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세계를 정기적으로 탐색하는 특수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간의 정신활동을 설명하는 두 가지 원리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쾌락-자아가 '소망'할 뿐이며, 쾌락 생산에만 매진하고 불쾌는 회피하려고 노력한다면 마찬가지로 현실-자아는 '유용한' 것만을 추구하고 손상을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사실은 쾌락원리를 현실원리로 대체한다 해서 쾌락원리를 완전히 폐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현실원리의 대체가 쾌락원리를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불확실한 어떤 순간적인 쾌락은 포기되지만 그것은 새로운 길을 통해서 나중에 더욱 확실한 쾌락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쾌락원리를 현실원리로 대체하는 그와 같은 일은 정신 내부에 너무도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종교적 신화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사실 세속적 쾌락을 포기-그것이 자발적인 것이든 강요에 의한 것이든-하면 그 대가로 내세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종교적 교리는 바로 그런 정신적 혁명을 신화적으로 투사한 것이나 같다.

(…)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교육은 쾌락원리를 극복하고 그것을 현실원리로 대체하게끔 하는 동기(자극)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은 자아 발전 과정에 도움을 준다. 그런 목적을 위해 교육은 교육자들이 주는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한껏 활용한다. (…) 예술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쾌락원리와 현실원리, 이 두 원리를 화해시킨다. 예술가란 본디 처음부터 스스로가 현실이 요구한 본능적 만족의 포기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등을 돌린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환상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야심에 가득 찬 소망과 성애적 소망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정신적 기능의 두 가지 원칙』(1911)

-'현실원리'가 기본적으로 '현실[=외부=타자]에 의해 매개된 쾌락원리'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현실 원리를 따르는 것은 그것이 순진하게 쾌락원리를 따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쾌감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현실원리와 쾌락원리라는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종교, 교육, 그리고 예술에 대해 설명한다.

-프로이트에게 종교는 미래의 쾌락을 위해서 현재의 쾌락을 포기하는 현실원리를 가장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정신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에게 있어 교육은 상장이나 성적표, 혹은 미래의 진학을 미끼로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쾌락원리를 현실원리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프로이트에게 예술가는 "환상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야심에 가득 찬 소망과 성애적 소망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자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